



## 스리랑카

# 19년 만에 내전 종식에 합의

지난 11월 3일 개최된 스리랑카 정부측과 타밀족 반군과의 제2차 평화협상에서 내전<sup>1)</sup> 종식이 합의됨에 따라, 지난 19년간 약 65,000명의 희생자를 낸 스리랑카 내전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그 동안 내전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스리랑카의 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대통령과 내각간의 갈등 심화로 경제 관련 주요 정부시책이 지연되는 등 정치적 불안 지속으로 말미암아 향후 경제회복은 아직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3일 내전 종식에 합의

〈표 1〉 스리랑카 내전 일지

일 자	내 용
1976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 결성
1983	정부군 13명 피살 계기로 싱할리족에 의한 타밀족 학살사건 발생. 타밀족 분리 무력투쟁 본격화
1985	정부·LTTE 최초 평화협상 실패
1991	LTTE가 연루된 테러로 라지브 간디 인도 수상 사망
1993	LTTE가 라나싱헤 프레마다사 대통령 암살
2000	LTTE 북부 요충지 장악으로 세력 확장
2002. 02. 22	노르웨이 정부 중재하에 정부·LTTE간 정전협정 서명
2002. 09. 18	제1차 평화협상
2002. 11. 03	제2차 평화협상에서 내전 종식에 합의

자료: 필자 정리.

1) 스리랑카 인구의 74%를 차지하는 싱할리족(불교)과 17%인 소수민족 타밀족(힌두교)간의 분쟁으로, 1983년 스리랑카로부터의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급진조직인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가 타밀족 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내전이 본격화되었음.

금년 2월 22일 스리랑카의 위크레메싱헤(Wicremasinghe) 총리와 타밀족 반군 '타밀엘람해방호랑이'(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의 지도자가 휴전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 지난 11월 3일 열린 제2차 평화협상에서 19년간의 내전 종식에 최종 합의하였다. 그 동안 정부와 팽팽한 긴장관계를 보여 온 LTTE는 내전 종식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위크레메싱헤의 총선 승리, 오랜 내전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불만 고조, 미국의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 거주 타밀족의 반군 지원 봉쇄 등으로 무력투쟁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LTTE는 기존의 독립국가 건설 요구를 철회하고 자치 등을 통한 기존 정치체제 참여로 노선을 선회함에 따라 이번 내전 종식 합의가 가능케 된 것이다. 합의서의 공식 서명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LTTE는 선거 참여 등의 정당활동을 통해서 민주적인 정치질서에 편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랜 내전으로 황폐화된 타밀족 거주지역인 북동부 지역의 경제복구 문제와 정부군의 점령으로 쫓겨난 주민들의 재이주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내전 종식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 고조

2001년 스리랑카 경제는 농업생산 부진과 수출입 규모의 축소에다 타밀족 반군의 스리랑카 공항 공격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까지 가중되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 기후조건의 완화와 평화협상 진전에 따른 농업·서비스 부문의 호조로 1/4분기에 0.3%, 2/4분기에 2.5% 성장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4분기에는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제조업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이 각각 3.7% 및 3.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회복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률 회복에 힘입어 금년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재정수지 적자도 내전 종식에 따른 국방비 지출의 감소, 세제개혁에 따른 세수 확대<sup>2)</sup>, 지속적인 민영화 수입 유입<sup>3)</sup>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에는 정치적 불안으로 투자용 자본재 수입이 크게 위축되면서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폭은 감소하였으나, 동시에 수출도 줄어들어 교역규모 자체가 크게 축소되었다. 2002년에는 평화협상 진전에 따른 투자용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폭은 전년보다 소폭 확대되었지만, 관광수입 증가<sup>4)</sup>에 따른 서비스 수지 개선으로 경상수지는 지

- 2) ADB는 스리랑카의 세제개혁 지원을 위해 기존의 세금 관련 3개 정부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세금감독청 (Revenue Authority) 설립에 기술적 자문과 함께 50만 달러를 제공키로 합의함.
- 3) 내전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과 투자자들의 관심 부족으로 스리랑카 정부는 금년도 민영화 실적은 목표액인 210억 스리랑카루피 중 최근까지 24억 스리랑카루피에 그쳤으나, 올해 말까지 Sri Lanka Insurance Corporation(SLIC)의 정부지분 90% 매각과 Sri Lanka Telecom(SLT)의 정부지분 15% 공모를 매듭지어 약 150억 스리랑카루피를 조달할 예정임.
- 4) 지난 2월 휴전협상 이후 입국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7월과 8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5% 및 125% 증가하였음.

〈표 2〉 스리랑카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sup>e</sup>	2003 <sup>f</sup>
실질GDP성장률	4.3	6.0	-1.4	3.0	5.5
소비자물가상승률	4.7	6.2	14.2	9.5	8.0
경상수지	-561	-1,042	-680	-589	-600
경상수지/GDP	-3.6	-6.4	-4.4	-3.6	-3.3
상품수지	-770	-1,044	-921	-961	-900
수출액	4,596	5,440	4,759	4,767	4,800
수입액	5,366	6,484	5,680	5,728	5,700
재정수지/GDP	-6.8	-9.5	-6.5	-6.9	-6.1
대외채무/GDP	62.6	62.6	55.5	56.5	55.6
D.S.R	9.9	9.9	9.6	11.2	9.5

자료: EIU Country Report, Nov. 2002.

난해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통령과 내각간의 대립 심화로 정치적 불안은 지속

2001년 초 무렵 제1야당인 국가통일전선(United National Front)을 이끌던 위크레메싱헤(Wickremasinghe)가 쿠마라통가(Kumaratunga) 대통령의 독재정치를 강력하게 비판하여 의회의 불신임 투표를 결의하자, 이에 맞서 쿠마라통가 대통령은 그 해 10월 10일에 의회를 해산하고 12월 5일에 총선을 실시하여 재집권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내전악화와 경기침체로 정국이 매우 혼미한 가운데 치러진 총선의 결과 국가통일전선이 집권당인 인민동맹(People's Alliance)을 누르고 의회 과반수 확보에 성공하면서 7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통일전선의 위크레메싱헤가 총리로 임명된 후 대통령은 내각이 제안하는 정부 시책들을 지연시키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향후 원만한 국정 운영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의회는 의원들이 소속당 정책에 반대하는 투표를 실시할 경우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헌법 아래서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의회 해산권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국회의원들의 양심투표를 허락하는 제19차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대법원은 이 개정안을 기각하는 대신 전체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회해산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대통령과 내각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갈등 심화는 향후 경기회복에 큰 제약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柳 在 昱】